

# 월간 미술

438



July 2021

since 1976



# SUN YUAN & PENG YU

쑤위안(孙原, 1972~)과 펑위(彭禹, 1974~)는 2000년 이후의 초기 작품부터 비가시적이나 분명히 존재하는 여러 힘의 역동성에 주목해왔다. 이들은 물, 공기, 무게, 부피, 에너지처럼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 혹은 압력, 권력, 통제, 자유처럼 사회와 역사의 시간들을 규정해온 다양한 힘을 응축시켜 거대한 설치작품에 담아냈다. 비물질적인 개념과 '극단'의 설치를 연결하는 이들이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예술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따라가 본다.



〈Can't Help Myself(难自禁)〉, 쿠카(Kuka)의 산업용 로봇, 스테인레스 스틸, 고무, 수채된 셀룰로스 에테르, 코그넥스(Cognex)의 시각인식 센서가 장착된 조명 그리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된 폴리 카보네이트 벽 700×700×500cm 2016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광경 2019 © 월간미술

## 통제와 자유 사이, 물질과 비물질 사이

유정아 | 미술사, 전시기획

쑤위안(孙原)과 펑위(彭禹)의 작품들은 강렬하다. 2003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실연된 작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개들(犬勿近, Dogs That Cannot Touch Each Other)〉에서 받은 인상은 지우기 힘들다. 사나운 개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던 전시공간은 그 조용했던 화이트 큐브를 긴장감 팽팽한 투견장으로, 느긋하게 거닐던 관람자들을 어느새 판돈을 따려는 도박꾼들로 바꾸었다. 이들이 발표한 작품마다 뿔어내는 도발적인 힘들은 이후 이들의 작품을 특징짓는 태그처럼 인식되었고, 이는 2019년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작 〈억누를 수 없는(难自禁, Can't Help Myself)〉까지 이어졌다. 투명한 입방체 속에 놓인 거대한 로봇 팔은 평음 속에서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붉은 물감을 휘저어 뿌려대며 전시공간을 폭력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고, 관람자들은 살인 현장에 소환된 구경꾼들처럼 모여들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이 통제 가능하다고 여겨온 여러 힘 앞에서 실상 우리가 지닌 욕망과 의지는 매우 쉽게 일그러지고 파괴되고 변형된다. 인류는 이제 그 스스로 편리함을 위해 발명해낸 문명의 이기들 앞에서 머뭇거리고, 인터넷과 SNS가 촘촘히 얽혀 있는 거미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거라고 여겨왔던 자연의 역습에 허둥대고 있다. 인간복제가

가능한 시대, 21세기 신인류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바이러스에 발이 묶이고 생활의 터전을 잃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했을까?

되돌아보면, 역사의 순간들을 만들어 온 것은 다수의 비가시적 힘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상하이에 위치한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보았던 쑤위안과 펑위의 개인전 〈그냥 한번 말해 본 열전(信口列传, Free Biographies)〉(2018~2019)은 구체적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듯했다. 1943년 중국 공군에 의해 격침된 일본군 비행기 조종사 히시다 모리노스케의 유품 속에서 그가 죽기 전 간직하고 있었을 사랑하는 여인의 흑백 사진을 보며 순간 숙연해지지만, 이 이미지들은 그저 작가들이 낳은 상상력의 산물일 뿐이다. 우리는 역사 기념관에 들어서면 전시된 대상들의 이미지들 속에서 저절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어느덧 그 이미지들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마법에 빠진다. 쑤위안과 펑위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상상이 본래 '당신의 두뇌 속에 있는 것'인지를 질문한다. "기억이 있지만 진짜가 아니라 심어진 겁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 주인공 K가 담담히 읊조리듯, 우리도 혹시 이식된 기억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위젯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현재 당면한 위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술의 힘을 발견해 보자.



〈Dogs That Cannot Touch Each Other(犬勿近)〉(스틸) 여덟 마리 불독, 구동장치 없는 여덟 대의 러닝머신 영상 7분 2003 작품은 2017년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Art and China after 1989: Theater of the World〉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미술전문가 및 여론이 제시한 윤리적 문제에 부딪혀 전시가 취소되었다



여러 작품에서 '통제'라는 주제를 다루어왔다. 나는 최근 중국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 환경을 생각해 보고 싶다. 예술가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이 중국 인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쑤위안: 중국은 현재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인터넷 관리가 가장 엄격한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매우 기이한 현상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지역이 물질, 과학, 생산력이 발달하고 풍부한 생활을 영위한다면, 이런 곳에서 문명이 쉽게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중국이 하나의 좋은 예인데, 이곳은 무엇이든 다 발달해 있지만, 문명의 변화 정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마치 어떤 이가 그 몸은 뚱뚱해졌는데 지능은 그렇게 빨리 발달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통제의 힘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통제에서 벗어나는가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전자를 고민하고 인민들은 후자의 문제를 고민하고, 예술가는 바로 그 '관계'를 고민한다고 할 수 있다.

평위: 우리는 작품 속에서 대부분 무형의 대상들을 다룬다. <친애하는(亲爱的, Dear)>은 공기, <자유(自由, Freedom)>는 물의 압력, <억누를 수 없는>은 물의 자연적 흐름을 사용했다. 우리는 보통 유유히 흐르는 물과 투명한 공기를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압력이 작용하는 물과 공기의 상태를 그것들이 지닌 특정 정서의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현상들이 표출되지 않으면 그 대상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이 세계의 에너지는 무한한 데다가 매우 많은 층위를 지니고 있어, 우리 인간은 지극히 일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세계의 무한한 물질들, 각기 다른 본성과 정서들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작품 속에서 기계의 다양한 작동원리에 주목하고 있다. 당신들이 바라보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당신들은 포스트휴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쑤위안: 기계가 우리 작품에 필수적인 부분인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용도로 쓰일 뿐이다. 예를 들어 어떤 동력이 필요할 때, 이제 그 작동에 인간은 더는 필요가 없다. 마치 산업현장에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것처럼, 예술현장에서도 이미 많은 작업이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계는 반드시 인간이 주연을 맡아야 하는 일련의 행위예술들을 수행할 수 없다. 이를테면 춤고 배고픈, 고통을 당하며 견디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혹은 자기구원의 순간을 표현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기계는



<Freedom(自由)> 금속판, 고압 유압식 펌프, 소방 호스, 소화전, 전자 제어 장치 1700×2000×1200cm 2016  
Courtesy of the artists



인간처럼 우쭐거리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며, 허영심도 없고, 다른 이의 눈을 가려 속임수를 쓰지도 않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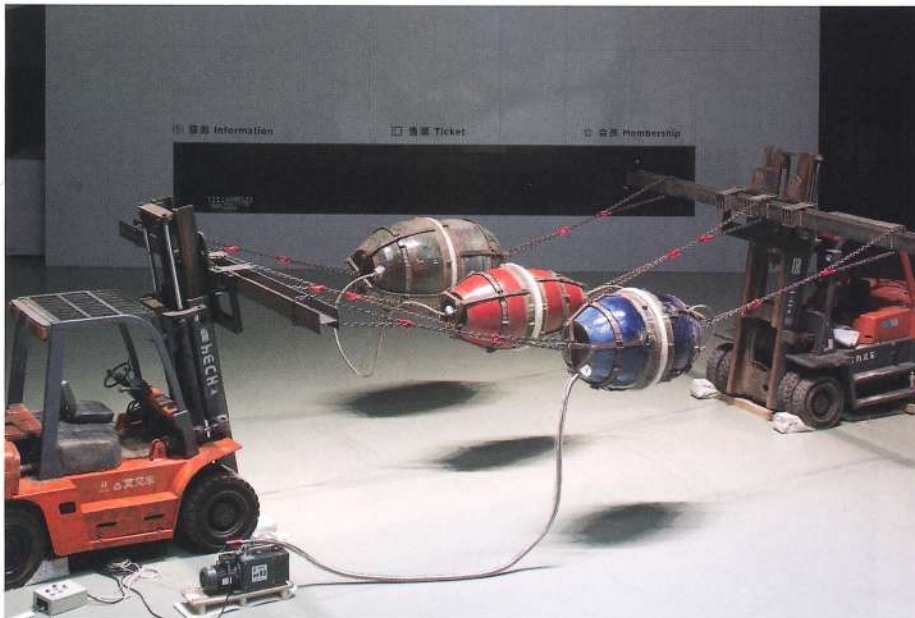
평위: 포스트휴먼 담론은,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사이보그는 줄곧 인류가 갈망해 오던 것이고, 단지 현재의 인공지능은 인간 신체 시스템에 비하면 아직 미숙한 정도이다. 멸망하는 그 최후의 날이 올 때까지, 인류가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 갖고 있는 욕망은 아마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윤리 도덕이 그것을 통제할 방법은 더는 없을 테고 단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현재 단계에서 예술가는 단지 일군의 응용자일 뿐이고, 그들이 기술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별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람들은 매우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당신들의 작품을 바라본다. 이 호기심이 혹여 단순한 오락거리로 전락할 위험은 없는가? 당신들은 작품에서 관찰자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쑨위안: 예술가가 창작활동을 할 때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게 된다. 마치 배우들이 공연할 때 관중의 표정을 살피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순간에 나는 한 명의 관중을 설정하는데,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이 된다. 즉, 나는 관중 모두와 나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면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 만약 관중이 바라보는 것이 나와

다르다면, 그건 나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 그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며, 나에게도 그가 나와 같아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관중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베토벤 음악을 듣는다고 상상해보자. 한 부류는 그 심오한 원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테고, 다른 부류는 그저 왁자지껄하게 들을 테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감동을 받은 것이다. 나는 창작할 때는 전자이고, 작품을 전시할 때는 후자에 가깝다. 나 역시 관찰자로서 내 작품을 바라보고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창작했는지 호기심을 갖는다. 관중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술을 보러 왔다면, 우리는 그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예술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국인이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애완동물 그리고 애국주의 정도에 그치는 것 같다.

평위: 동시대는 책임감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나누려고 하는 것 같다. 국민의 책임감은 무엇일까? 포퓰리즘은 국민의식일까?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발단이 될 터이니,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 세계 관중은 모두가 새로운 사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다. 오늘날처럼 시각 체험이 폭발하는 시대에, 관람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고, 몰입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Far Away(那么远)》 두 대의 지게차, 향아리 세 쌍, 진공 펌프 1300×600cm 2016  
《제11회 상하이 비엔날레》 전시 광경 2016 Courtesy of the artists



불편한 대상에 계속 집중하게 하는 것, 이진 정말 어려운 일이다.

2016년 상하이 비엔날레 출품작 <그렇게도 먼(那么远)>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장에서 당신들의 작품은 질료의 '물질성'이 매우 강하게 표현된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동시대 미술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비물질적' 경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쑤위안: 나는 예술매체가 '비물질화'의 경향으로 발전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상공간은 반드시 '비물질'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다만 많은 '비물질'의 개념을 '물질'의 이미지로 변환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물질의 정의에 대해 지나치게 전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개념에 기대고 있는 것은 사실 모두가 물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이든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들이든 그 무엇이건 이렇게 '물질화'된 시대는 없었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현대화 기술, 설비,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기와 통신설비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진정한 '비물질화'는 근본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전통예술이 가장 간단한 물질을 사용해서 거대한 정신적 함의를 감당하는 정도다. 그래서 나는 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은 없다. 그저 어떤 기술이 지금껏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다.

평위: 인간은 절대 신체라는 존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物)'은 영원히 인간의 과제이고, 현실의 물질에 의해 제약되고 속박된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적인 물질의 실제적 속성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만약 가상공간의 창작이 현실 이미지 혹은 관계 모방에 그친다면 그것은 실상 근본적으로 '가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미 있게 형성된 열정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어떤 유행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한 것은 기술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유 행위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아무리 오랜 시간 기술력이 발전한 후라도 다시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작품들을 촉발시킨 (사유들) 위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한번 말해 본 열전(信口列传)>을 직접 보고 이전 작품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다. 이 전시에 관한 당신들의 견해를 듣고 싶다.

쑤위안: '비물질화'에 관해서 두 가지 연관된 작업들이 있다. 하나는 '물성(物)'을 덜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물질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순수하게 물성을 덜어내는 것이 반드시 어떤 '비물질' 적인 내용을 첨가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초점은 '물성'이 감소한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결핍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어떤 하나의 서사가 힘이 있는 근거를 가지려면, 모든 '물증'은 진실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많은 지역의



<Dear (亲爱的)> 에어 펌프, 에어 탱크, 호스, 소파 2015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광경 2019  
Courtesy of the artists



반전(反戰) 기념관이나 애국주의 교육토대가 그러한 것처럼, 몇몇 고전적 물증이 이런 서사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전시에 소개된) 이 이야기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관습적인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위반한다. 중국 역사의 허구성은 이미 보편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야사(野史)의 재구성은 즉 정사에 대한 구제이기도 하다. 나에게만 관방 역사는 무척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반면, 내가 직조해 낸 역사는 오히려 혹독한 리얼리즘이 담긴 것 같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미지들의 효과를 상업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도 하지만, 나는 내 (작품 안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활용할 뿐이다.

2020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작품 <NO WAY>가 전시되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민주화운동'이라는 전시 맥락 안에서 읽히기도 하는데, 당신들이 이 작품을 창작할 때 염두에 둔 것은 무엇인가?

쑤위안: 나는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한 서사 방식에 주목했다. 당신은 물을 볼 수 없고 온도를 느낄 수 없지만, 갑작스럽게 수증기가 치솟으면서 이 물과 불이 존재를 드러내게 된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가열된 책상, 떨어지는 물을 그 이야기들 속에 녹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작품 자체가 지닌 언어적 능력도 있고, 서사로부터 독립해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는 많은 긴장된 상황들, 취조실, 대화, 담판 등을 상상할 수 있겠지만, 나는 특정 이야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더 필요했다.

코로나19 격리기간에 촬영된, GALLERIA CONTINUA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 평위의 영상을 봤다. 당신은 지금 예술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평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인간은 국가의 부속 단위가 되었고, 중국과 미국에서 모두 강경한 국수주의자들이 대두했다. 이는 일종의 파시스트 정서를 낳으면서 국가 간의 기본 교양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예술 또한 작은 그룹 내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적상실'의 상황을 마주해야 하니,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그러니 예술가는 이런 때 최대한 세계에 애정 어린 마음을 보태고, 예술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한 인류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존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감독 허우샤오셴(侯孝賢)은 어느 인터뷰에서 '중력의 법칙' 속에서 그리고 '현실의 제약' 속에서 오히려 가장 좋은 표현이 나온다고 말한 적 있다. 우리가 중국 동시대 미술을 바라볼 때 선부른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본다. 이번 인터뷰에서 쑤위안이 말한, "예술가의 역할은 통제와 자유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Can't Help Myself(难自禁)> 앞에 선 쑤위안(사진 오른쪽)과 평위 Image courtesy of the artists